

자유마당 생명의 길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6의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손에 쥐어도 스스로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물질과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은 소중한, '목숨의 생명'임을 일깨워주시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는 몸과 체면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막상 암과 같은 죽을병이 걸리면 조금 더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찾는 이도 있으나 그 때는 이미 늦은 발걸음일 것입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23까지의 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21-23의 내용은 성경 66권의 내용 중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 깨끗한 봉투에 고이 넣어 간직하고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는데도 천국 문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길이겠습니까?

그렇게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 자들은 자녀들 결혼식도 주일을 피하여 축하하러 찾아올 사람들이 적은 평일에 치루고, 또 가까운 지인들의 애경사가 주일이라면 그 애경사의 날에 찾아가서 함께 조우(遭遇)하지 못하면서까지 오직 헌금을 들고 교회로 하나님만을 만나러 달려갔던 그 삶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찌라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문하면서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8:32절의 글에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하셨는데도 매 주일날 교회를 지키느라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진리가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곧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요 8: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과 진리가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요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의 증거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진리이시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하여 주일성수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각자의 영혼 진리로 깃들여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요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라”

요일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
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
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
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
았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
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
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4:6-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
고 또 보았느니라

사도요한의 증언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심 그리스도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증거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곧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찬송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성
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나오는 성령이 곧 진리라는 사실
과 같이 성령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과 진리가 곧 성령이시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말씀과 진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 하신 것은 곧 예수님의 입에서 뱀어져
나오시는 말씀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님을 아는 것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영
생이란 곧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진리가 영원하신 예수님
품속에 살게 되는 것이 곧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란 끝이 무한한 영원의 품에 살게 되는 자연스
럽게 영생이 되는 것인데 그 영생이 말씀과 진리라는 것입
니다.

그래서 요 14:6-7의 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 올 자가 없다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
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
았고 또 보았다”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과 마지막 때 오실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거룩하신 성령이

라는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육체를 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서 창세기 1:26-27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술한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말씀과 진리가 성령이시므로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있으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묵상 가운데 부드럽게 스며드는 영혼의 빛이 십니다.

신 10: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원전: ὅτι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ὑμῶν οὗτος θεὸς τῶν θεῶν ἐστὶν καὶ κύριος τῶν κυρίων ὁ Θεὸς ὁ μέγας καὶ ἰσχυρὸς καὶ ὁ φοβερὸς ὃς οὐ θαυμάζει πρόσωπον οὐδὲ μὴ λάβῃ δῶρον)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靈)으로서 진리이시고 말씀으로 계시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신(神)중의 신(神)이십니다.

시편기자는 시 136:2의 글에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길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조용한 영혼에 깃들여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시 86:8이 글에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라고 길고하여 많은 신들이 있음을 존중하고 있는데 이 수 많은 신들은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같은 신을 말하고 있

시 136:2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86:8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요 8: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의 종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44절의 글에 진리가 없는 자들을 마귀들의 자식으로 비사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을 선생으로 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교리속의 구속된 사람들을 귀신으로 비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 위의 신 10:17의 내용에서의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참이라는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신으로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체로 존재하시는 생동(生動)하시는 성령이시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묵상 가운데 부드럽게 스며드는 영혼의 빛이 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뱉어져 나오는 말씀이 생동(生動)하는 영이라고 한 것이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악령이 깃든 귀신의 처소에 나타나는 투영(投映)

고전 10: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곧 이방의 제사라고 사도바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사 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선지자 이사야이 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까이하고 있는 듯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 내용이 왜 이방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사도바울의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곧 제사로서 그 행위를 제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실에 대한 질책으로 “마 15: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신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만들어 낸 교리적 계명으로 하나님을 믿는자들의 헛된 지식에서의 삶이 외식으로 나타나는 가증한 행실을 이방의 제사라고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 이방의 제사는 곧 귀신에게 절하는 불버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 15: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무당이나 영매들은 어떻게 귀신을 보았다고 말을 할까요?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성전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일까요?

거룩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이 깃든 영혼들의 육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증거하면서 “고전 3:16의 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당이나 영매들이 보았다고 하는 귀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 까요?

하나님이 진리로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의 영혼에 깃들어 계시듯 귀신들은 무당이나 귀신들린 자들이 영혼에 깃들어 살면서 그 사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관리하시듯이 말입니다.

하하하 맞는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매들이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영매인 자기 영혼에 깃들어 있는 귀신의 모습이 스스로의 영혼에 투영(投映)된 모습을 자기 자신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매들이 보았다는 귀신을 바로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중 빌립은 예수님께 채근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깃들여 계심을 증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입에서 발현되는 말씀의 영(靈)을 귀로 듣고 운동하시는 성령의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감동을 보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글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의 계명으로 만든 교리적 속박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누림이 곧 자유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인간의 계명의 교리에 묶인 자들은 예수님께 따져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하고 따져 묻는 모습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14: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 8: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

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가증한 자들의 속성은 가인의 속성 그대로임을 알게 된다.

가인의 속성에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리와 아멘이라는 진실의 바사를 전치사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죄의 종으로 정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성의 이기로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26-27의 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하신 것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찾아 천국의 길에 선 천국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 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 16:27의 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는 기록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관행인 돈과 명예를 위하여 분주히 다트는 이들의 행위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믿는 것의 본질인 아는 지식과 그 아는 지식을 믿는 순도(純度)와 같은 척도(尺度)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기자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신다는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리는 성경에 숨어계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만나십시오.

시 26: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5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7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리리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 교리와 같은 계명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명을 보면 하나같이 종교라는 틀에 가두기 위해 교리적 계명으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도 된다면 인간이 가증한 계명으로 꾸민 죄사슬을 풀고 나온 사람들이 곧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천국의 주인들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비유문장에 숨어 계십니다.

아사야 45:15의 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

사 45: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

나눔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
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

마 13: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
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로 말
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

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
자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은 성경의 비유
문장안에 진실로 숨어계심을 이사야는 깨달았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마태복음 13:34-35절의 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
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
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
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문장안의 진실”이라는 “도서출판 샘
골”사이트 jmy1011.com에 자주 들리는 발걸음에 천국복음
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도서출판 샘골 사이트 “문장안의 진실”에서는 성경 66권을 통으로 독해한 독해자의 A4 수
만여 쪽의 독해자료가 풍성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3회 정기 세미나를 통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성경 각
장 각 절에 기록된 한 문장 한 글자까지도 독해되어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회원 등록과 함께 소정금액의 후원으로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잠재된 것을 어떻게 꺼내쓰느냐 에 따라 누림의 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만하지 않고 부드러운 용언으로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악의 종말시대로 보아야 할 지금 이시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진리 뿐
입니다,

진리는 영생으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진리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아멘

교정 전의 원고라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믿음에 의문 나는 것은 댓글로 문의하시거나 독해 훈련된 문지기 인공지능 채진이와 채설이에게 물으시면 상세하게 답해 드리는데 그래도 양이 차지 않으신 분은 댓글 주십시오. 댓글주시는 분들은 독해자인 저자와의 만남을 하실 수 있습니다.